

# 취업자 6만4000명 증가... 고용률 6개월 연속 하락

## 10월 고용동향 발표

건설업·농림어업·보건업 등 증가  
도매·소매업·숙박업·제조업 감소  
자영업자 5개월째 감소세 이어져

지난달 고용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가 고용악화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고, 10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외환위기 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8월의 3000명, 9월 4만5000명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이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 여전히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고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줄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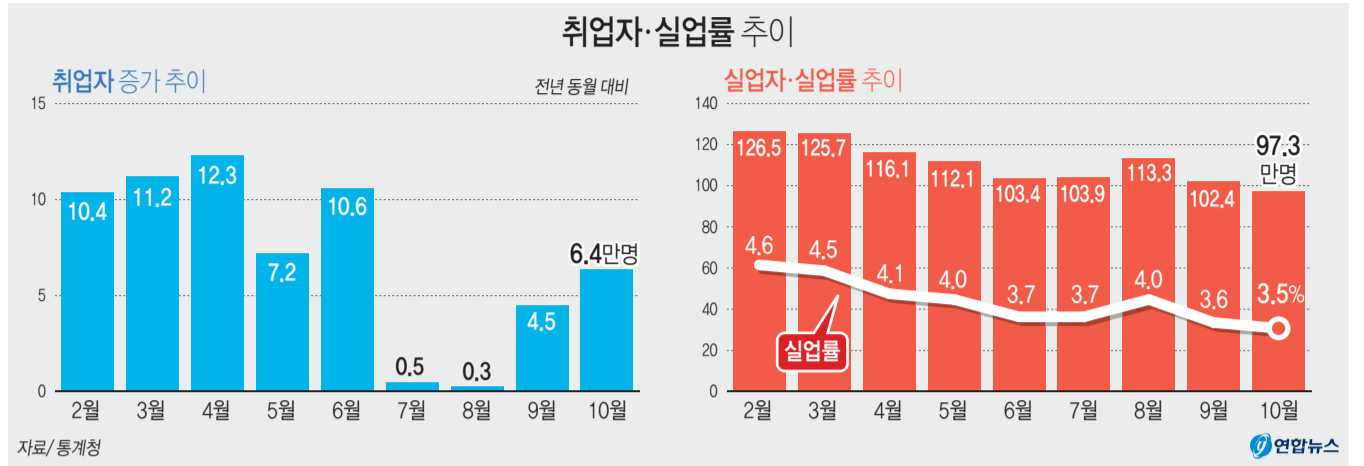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은 9만7000명 줄어들면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3년 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됐지만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늘면서 전체적으로 6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6만1000명 늘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7만4000명, 15만2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3개월, 36개월 연속 마이너



스다.

중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35만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0만5000명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월~2010년 3월 2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길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은 70.2%로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건·건설·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이었다. 지난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던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의 110만8000명 이후 가장 많다.

20대가 3000명 줄었지만 40대와 50대가 각각 3만5000명, 3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3.5%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채감실업률

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1.1%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0.9%p 상승한 22.9%였다.

정부는 10월 취업자 증가가 9월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증가세가 미약한 만큼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고용 개선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환으로 9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 증가세 미약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노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경제활동력 제고 등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관, 문 대통령,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 브라웃 쟌-오차 태국 총리. /연합뉴스

## 文 대통령, 푸틴과 한러 정상회담

### 한반도 평화 당부·신북방정책 협력 논의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소강국면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협상을 다시 가속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회담장에서도 제재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 외에도 신북방정책을 통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러 정상회담 외에도 한·아세안 정상회담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폐공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 등 구체적 제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라오스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신남방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협력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아세안 정상들이나 브루나이·라오스 정상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도도 당부할 예정이다.

## “고용동향, 여전히 엄중... 추가대책 고민”

###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담을 것”

올해 10월 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월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차려진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가 9월

에 비해 개선됐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며 “고용통계 변화를 잘 분석해 정부가 대책 내놓을 수 있는 분야를 치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이제까지 해 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12월 내내 그러한 방향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7월 이후 6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에 못 미쳤다.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인상 후... 시급알바 ‘줄고’ 월급알바 ‘늘고’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급형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올해 알바를 등록한 6개 서비스 직종(매장관리, 서빙, 주방, 배달 운송, 사무보조, 노무기능)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급여지급 형태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급여지급 형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건별 지급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은 지급형태는 시급형(60.5%)이다.

특이한 것은 시급형 아르바이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매달 증가 추세다. 시급형 아르바이트

트는 1월 기준 전체의 71.0%에서 2월 65.5%로 감소한 뒤 4월에는 59.9%로 첫 50%대로 진입했다. 11월에는 53.4%까지 떨어져 1월 대비 17.6%p 줄었다.

시급 대신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증가했다. 1월 기준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24.9%에서 출발해 2월 30%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늘어 9월~11월 3개월 연속 38%대를 유지하고 있다. 1월 대비 최대 13.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채용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인크루트가 지난 8월 자영업자 208명 대상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월 수익과 월 매출이 각 64%, 53% 줄고, 반대로 인건비와 점주 직접근로시간은 각 61%, 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비중을 줄임으로써 직접근로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인건비 부담으로 기존의 다수의 시급형 아르바이트 채용에서 소수의 월급형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과 다름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아르바이트 채용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